
일반논문

덕 윤리와 유덕한 행위자 모델

장 동 익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덕 윤리는 행위자의 성품에 대한 평가를 윤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평가로 삼는다. 그리고 행위자의 성품에 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그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스럽게 행위자의 성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행위자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이며, 독립적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으며,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윤리학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오랜 믿음과는 달리, 덕 개념이 의무 개념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으로의 변화를 요구했다. 즉, 덕 개념이 ‘옳은 행위’ 개념보다 설명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성품에 대한 아레테식 판단이 행위에 대한 의무론적 판단에 우선한다는 덕 윤리의 주장은 어쩌면 윤리학적 사유의 혁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덕 윤리의 주장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리주의와 칸트식 윤리학과 같은 행위 중심 윤리(Act-based Ethics) 또는 의무 윤리학(Duty Ethic

주제어: 유덕한 행위자, 아레테 평가, 성품 평가, 사용설명서 모델, 모범자 모델, 발전 모델

Virtuous agent, aretaic evaluation, character-evaluation, technical manual model, role model, developmental model

s)¹⁾의 난점을 해소하며, 이들 윤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윤리학이라는 평가와 관심을 받으면서 윤리 이론의 하나로 자리를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다. 덕 윤리가 가진 이론 내적인 여러 장점덕분에 지배적인 규범 윤리학 이론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비판도 많이 제기되었다. 핵심적인 비판 중 하나는 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며, 유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유덕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물음들은 얼핏 단순해 보여도 덕 윤리의 존립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덕 윤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비판을 해명하거나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덕 윤리가 이런 물음에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실제로 여러 덕 윤리학자들이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명쾌한 설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덕 윤리의 입장에서는 본래 해결될 수 없는 덕 윤리의 아킬레스 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덕 윤리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덕 윤리의 본래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덕 윤리에 의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결코 해명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²⁾ 그렇게 본다면,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덕 윤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려는 시도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면, 이러한 시도

1) ‘Duty Ethics’라는 용어는 덕 윤리학자들이 칸트식의 윤리 이론과 공리주의를 비롯한 행위 중심 윤리(Act-based Ethics) 이론을 총칭하여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2) 덕 윤리의 문제점이 “본래적 특성”에 기인한다면 반박될 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정확한 “공리값”을 결코 계산해 낼 가능성이 없다는 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리값을 계산하려는 공리주의자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는 작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더욱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옳은 행위와 유덕한 행위를 유덕한 행위자를 토대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덕 윤리에 제기된 가장 의미 있는 비판인, 어떻게 해서 유덕한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핵심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품에 대한 아레테적 평가와 행위의 의무론적 평가의 우선성에 대한 덕 윤리의 입장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덕 윤리의 아레테적 평가의 우선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덕한 행위자와 옳은 행위 그리고 유덕한 행위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행위 정칙과 앞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앞에 관한 몇 가지 모델, 즉 사용설명서 모델, 모범자 모델, 그리고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서 발전 모델이 덕 윤리의 입장과 가장 잘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³⁾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옳은 행위는 유덕한 행위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단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성품에 대한 아레테적 평가와 행위의 의무론적 평가의 우선성에 대한 덕 윤리의 입장들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덕 윤리의 아레테적 평가의 우선성에 대

3) 본문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이상적인 모델에 의거한 옳은 행위 설명 방식”과 “행위에 초점을 두어 옳은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서 논의하였다. 이렇게 논의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덕 윤리학자들은 내가 ‘옳은 행위 정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유덕자, 유덕한 행위 그리고 옳은 행위를 논의하거나 유덕한 행위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너시스와 같은 특정 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논의 방식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한 입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덕한 행위자와 옳은 행위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덕 윤리와 옳은 행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덕 윤리의 어떤 유형을 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간략한 논의가 있는 것이, 앞으로의 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성품 평가의 우선성에 대한 덕 윤리의 견해들

앞에서 말했듯이 성품에 대한 아레테적 평가와 행위의 의무론적 평가의 우선성에 대한 덕 윤리적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유덕한 행위자와 옳은 행위의 관계를 간략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덕 윤리는 평가 용어의 지위에 관한 입장에 따라서 온건한 입장과 급진적 입장으로 구분된다.⁴⁾

온건한 입장은 비환원적 입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덕 윤리학과 의무 윤리학을 서로 양립불가능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이해한다. 따라서 온건한 입장은 윤리학의 기초적인 평가는 성품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성품에 대한 평가는 행위에 대한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온건한 입장은 성품 평가와는 독립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슬롯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덕과 유덕한 개별자를 윤리학적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결코 그가 행위 평가를 행위자, 동기, 성품 평가에서 파생한 것으로 다룬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Slot: 90)고 주장하면서 행위에 대한 평가는 성품의 윤리적 상태에서 전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덕 윤리를 온건한 입장과 급진적 입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런 구분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Kurt Baier(1998), “Radical Virtue Ethic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13, pp. 126-135 참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윤리학은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두 부분, 즉 의무 윤리적 평가와 아레테적 평가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온건한 입장도 아레테적 평가가 의무론적 평가에 우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온건한 입장은 다만 행위의 의무론적 평가가 모두 아레테적 평가로 환원되지도 않으며, 모두 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일 뿐이다. 말하자면, 온건한 입장은 행위의 의무론적 평가가 체계적인 윤리 이론 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를 통한 행위의 아레테적 평가가 윤리학 전반에 우선하고 약간의 의무론적 평가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덕 윤리학자는 이러한 의무론적 평가를 인정하면 서도 자신의 덕 윤리 체계 내에서 이러한 의무론적 평가를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면 슬롯은 온건한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제시하는 윤리학의 아레테적 평가어인 “경탄할만한”(admirable)과 “통탄할만한”(deplorable)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행위가 이러한 아레테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온건한 입장과는 달리 급진적 입장은 성품에 대한 평가에 독립적인 행위 평가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행위 평가는 언제나 성품에 대한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급진적 입장은 대체 입장과 환원주의적 입장으로 구분된다. 대체 입장은 덕 윤리학의 가장 급진적인 입장으로 ‘행위의 의무론적 평가’는 체계적인 윤리학 이론 안에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위에 대한 옳음, 그름, 또는 의무와 같은 평가나 판단은 모순되거나 유해하기 때문에, 윤리 이론에서 전적으로 무시되어야 한다. 엘리자베스 앤스콤⁶⁾은 도덕적 의무 체계는 아레테적 판단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들을 해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체계에 대한 탐구를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

5) Michael Slote, op. cit., pp. 87-96 참조.

6) Elizabeth Anscombe(1958),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pp. 1-19 참조.

장은 의도, 성품, 덕 개념을 도덕적 의무를 행하기 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세속적 조건에서 도덕적 의무 개념은 이해될 수 없으므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환원주의적 입장은 의무론적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품 평가가 행위 평가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덕 윤리를 성품의 아레테적 판단을 기초로 삼아 행위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윤리 이론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덕 윤리에서 거짓말은 부정직이고 부정직은 악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르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부정하거나 배신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의무론적 평가는 성품의 아레테적 평가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아레테적 평가에서 파생된 것이다. 윌리엄 프랑케나는 덕 윤리를 아레테적 행위자 윤리라고 부르면서, 이런 윤리는 행위자와 그의 성품에 대한 아레테적 판단을 기초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행위자에 대한 평가에서 파생적인 것으로 다루는 윤리라고 주장한다.⁷⁾

이 논문에서 나는 옳은 행위가 덕에 해서 파생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다는 덕 윤리의 환원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덕 윤리의 환원주의는 유덕한 행위자를 빌어서 옳은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윤리학에서 옳은 행위를 설명하려는 오랜 논의에 동참하여, 옳은 행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덕한 행위자를 빌어서 옳은 행위를 설명하려는 이러한 입장을 갖는 경우 유덕한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초보적인 유덕한 행위자가 어떠한 활동과 행위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유덕한 행위자가 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설명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덕 윤리의 환원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유덕한 행위자를 빌어서 옳은

7) William Frankena(1970), "Prichard and the ethics of virtue," *The Monist* 54, pp. 1-17 참조

행위를 설명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는 유덕한 행위자와 옳은 행위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덕 윤리의 환원주의적 입장이 완전한 유덕한 행위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명될 것이다.

2. 유덕한 행위자, 옳은 행위 그리고 유덕한 행위

유덕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밝히는 것은 덕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유덕한 사람을 통하여 유덕한 행위를 해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윤리학에서 오랜 동안 해명하고자 했던 옳은 행위도 역시 해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주님(God)의 입을 빌려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고 있다”(요한 볼프강 폰 괴테, 민음사, 24쪽)고 말한다. 그러나 괴테가 말하는 착한 사람, 즉 유덕한 사람에 대한 해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유덕한 사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할지라도, 유덕한 사람에 근거하여 옳은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덕 윤리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에 의하면 덕 윤리는 실제 세계의 윤리적 문제에 적용될 수 없는 모호한 이론일 뿐이다. 즉 덕 윤리는 규범적 문제에 너무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윤리적 문제에 대답해 줄 수 없는 적용 가능성이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덕에 대한 윤리적 사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덕 윤리는 친절한 것을 행하고, 무례한 행위를 피해야 하며, 부정직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리한 반론에 대답하려 할 수 있다. 얼핏 이러한 대답이 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는 대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덕 윤리는 도덕적 덕의 본성상 도덕적 근경에 빠진 사람에게 매우 제한된 충고만을 해줄 수 있을 뿐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⁸⁾

덕 윤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해야 할 옳은 일은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⁹⁾ 그러나 우리가 유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것을 하려고 해도, 도덕적 모범자인 유덕한 사람이 우리의 처지에서 행할 법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유덕한 행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면 유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행위를 따라하면 되지만, 과연 유덕한 행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만약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유덕한 행위자라면,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행위가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덕 윤리학의 주장은 순환의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옳은 행위가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것에 의해 결정되면서, 행위의 옳음을 통하여 유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덕 윤리에 대한 주요한 비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비판이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봄으로써 약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신참내기 의사는 자신의 전문직 스승이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할 법한 것을 행하면서 자신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정의 판사는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중

8) Robert B. Loudon(1984), "On Some Vices of Virtue Ethic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1, p. 229 참조.

9) Justin Oakley(1996), "Varieties of Virtue Ethics", *Ratio* IX2, p. 129 참조.

종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정당화하는 데 매우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 윤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답을 아직은 설득력 있는 대답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유덕자, 유덕한 행위, 그리고 옳은 행위의 관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 윤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덕 윤리를 옹호하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덕한 행위자, 유덕한 행위, 그리고 옳은 행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즉 유덕한 행위자와 그가 할법한 행위를 근거로 옳은 행위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설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러한 해명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논문이 다루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3. 유덕한 행위자의 조건

유덕한 행위가 어떤 종류의 행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유덕한 행위자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명을 통하여 옳은 행위 역시 보다 용이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덕한 행위가 어떤 종류의 행위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유덕한 행위를,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거나, 위협에 맞서거나,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우연히 의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왔을 수 있으며, 위협하다는

10) 나는 이러한 설명 방식이 본 논문이 옹호하고자 하는 “발전 모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발전모델 옹호는 이러한 전문가적인 특성을 빌어서 설명되고 있다.

것을 알지 못하고 위협에 맞섰을 수 있고,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누군가를 돕거나, 위협에 맞서고 있으며,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옳은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유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옳은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유덕한 행위를 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¹¹⁾ 왜냐하면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돕고, 위협에 맞서며, 진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 공무원 김승일과 김현희는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를 폭파하여 탑승객 115명 전원을 죽게 한 참사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체포되기 직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 없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행동을 시도했다고 해서 이들의 행동에 ‘용기의 덕’이 들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얼핏 용감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감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나는 어떤 사람이 유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유덕한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적절한 이유를, 예를 들면, 덕 윤리적 의미에서 가치 있는 성품과 관련한 바람직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유덕한 행위란 자신이 처한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실천되어야 할 적절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유덕한 사람은 유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합당하고 올바른 이유에서 행위 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은 합당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하며, 변덕스럽거나 또는 충동적이거나 맹목

11) 여기서의 단지 유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행위를 따라서 한다는 것으로 한정해서 논의하고 있다. 유덕한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 또는 성향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곧바로 유덕한 행위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손쉽고 기꺼워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꺼리면서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 이들이 실제로 합당하고 올바른 이유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군가를 돕고는 있지만 적절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적절한 감정을 가진 사람도 윤리적으로 합당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적절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틀림없이 유덕한 사람은 적절한 감정을 가지고서 행동할 것이다. 확실히 덕 윤리는 부적절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유덕한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유덕하게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유덕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유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합당하고 올바른 이유에서 그리고 적절한 감정을 가지고서 행위 하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유덕한 사람 그리고 유덕한 행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행위를 단순히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유덕한 행위자가 되기 위한 조건임과 동시에 유덕한 행위자가 유덕한 행위를 하게 되는 조건일 것이다. 유덕한 행위자가 유덕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¹²⁾

(i) 행위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1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05a30-35 참조.

- (ii) 선택에 의거해서 행하되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
- (iii) 확고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 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유덕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유덕한 행위자가 행위 하는 것처럼 행위 할 수 있는 첫째 조건 (i)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덕하지 않은 사람이, 즉 유덕해 지려고 노력하며 배우고 있는 초보자가 어떤 것이 유덕한 행위인지, 즉 어떤 행위가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행위인지 알 수 있단 말인가?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첫째 조건(i)에 의해 제기되는 이와 같은 물음에 대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유덕한 행위인지를 알아야, 그 행위를 요구하는 덕에 따르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할 것이고 그리하여 윤리적으로 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물음은 다음과 같이 간략해 볼 수 있다. 즉 유덕해지려고 노력하는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한 설명은 첫째, 행위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방식, 둘째, 이상적인 모델에 의거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행위에 초점을 두어 옳은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

행위에 초점을 두고서 설명하는 방식은 ‘덕 윤리의 옳은 행위 정식’(RAIVE)¹³⁾을 빌어서 설명될 수 있다.

덕 윤리의 옳은 행위 정식(RAIVE):

한 행위가 옳게 되는 필요충분조건은 그 행위가 유덕한 성품을 지닌 행위자가 그 상황에서 행했을 법한 행위인 경우이다(Hursthouse: 30).¹⁴⁾

덕 윤리의 환원주의적 입장은 옳은 행위가 유덕한 성품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품이 옳은 행위에 우선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며, 그 정당화된 성품에서 옳은 행위가 2차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덕 윤리¹⁵⁾에서 행위의 옳음은 유덕한 행위자를 빌어서 정의되곤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는 윤리적 덕과 관련하여 그 덕을 겸비한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 행위가 옳게 되는 것은 오직 그 행위가 유덕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행했을 법한 것이라는 점 덕분이다. 따라서 덕 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유덕한 성품을 지닌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행위인지에 의해 결정한다.¹⁶⁾

13) 나는 덕 윤리에서 옳은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덕 윤리의 옳은 행위 정식”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명제의 특성에 따른 것이며, 이 명제를 간편하게 지칭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외에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편의상 사용한 알파벳의 “RAIVE”는 “덕 윤리에 있어서 옳은 행위”의 영어 표현인 “Right Action In Virtue Ethics”의 약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들은 내가 편의상 만든 용어들일 뿐이다.

14) 나는 옳은 행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은 “환원론적 입장의 덕 윤리”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15)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후의 ‘덕 윤리’라는 용어는 ‘환원주의적 입장의 덕 윤리’를 의미한다.

16) 그러나 이러한 성품의 우선성은 덕 윤리뿐만 아니라 여타의 윤리에서도 주장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이나 가치 극대화의 결과주의적 요구 그리고 유용성의 극대화를 선한 행위자의 성품을 통하여 이해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바라 허만은 행위의 옳음의 기준을 제공하는 칸트의 정언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 과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한 행위자의 성품에 있는 규범적 기질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Barbara Herman(1993), *The Practice of Moral Judgment*, Harvard University Press를 참고할 것. 또한 피터 레일톤은 행위자에 중립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라는 결과주의적 요구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자선의 덕을 가진 사람이 행할 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선의 덕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¹⁷⁾ 또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이 생긴 경우, 다른 곳에 그 돈을 써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더라도,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왜냐하면 돈을 갚는 것은 정의의 덕을 가진 사람이 행할 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¹⁸⁾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비록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정직의 덕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부인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묻는다면, 그리고 내가 친구의 부인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직의 덕을 가진 사람이 그 상황에서 했을 법한 행동이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나는 덕 윤리의 옳은 행위를 위한 정식(RAIVE)은 옳은 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RAIVE는 옳은 행위의 단순한 ‘외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외적인 기준은 명령하는 행위 실행에 있어서 어떤 성품에 의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 지와는 무관하게 옳은 행위가

는 선한 행위자의 성품에 있는 규범적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Peter Railton(1988), ‘Alienation, Consequentialism and demands of Morality,’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Samuel Scheffler(ed), Oxford University Press을 참고할 것. 그리고 헤어는 유용성을 극대화하라는功利주의적 요구는 선한 행위자의 성품에 있는 규범적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R.M. Hare(1981), *Moral Thinking: Its Levels, Method, and Point*, Oxford University Press, UK참조.

17) Philippa Foot(1991), ‘Euthanasia,’ *Virtue and Vic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54 참조.

18) Philippa Foot, op. cit., pp. 44-5 참조.

19) Rosalind Hursthouse(1991), “Virtue Theory and Abor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0, pp. 229-231 참조.

되는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RAIVE가 옳은 행위에 대한 외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나는 덕 윤리는 RAIVE를 정식화 할 때, 행위 실행의 외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덕 윤리는 우정의 행위에 단순히 합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덕 윤리가 요구하는 유덕한 행위나 덕에 따른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스톡커(Stocker)는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제시하였다. 갑의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갑은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병문안을 갔다. 그 후로도 갑의 친구는 병이 호전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입원한 채로 답답한 나날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었다. 병문안을 오는 사람도 드물어지고 점점 아무도 문병을 오지 않게 되었다. 그 즈음, 갑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병문안을 다시 한 번 갔다. 갑의 친구는 갑의 두 번째 병문안에 매우 기분이 좋았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 나의 건강을 염려해 주어 정말 고맙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갑은 “아니다. 내가 병문안을 온 것은 단지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 너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 즉 우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Michael Stocker: 36-45)고 말하였다.

이런 갑의 태도가 겸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즉 진짜로 오로지 의무감에서 병문안을 한 것이라면, 갑의 친구는 매우 실망하거나 낙담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갑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갑의 태도는 우리의 성품에 핵심적인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다. 갑은 우정의 의무가 요구하는 행위를 만족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의무에 따른 것일 뿐 우정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갑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

해서는 우정의 의무에 따른 행위 말고도, 성품과 관련된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우정의 성품을 결여한 사람은 결코 우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덕을 결여한 사람에 의해서도 덕이 요구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갑의 태도는 RAIVE의 외적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덕 윤리가 의도하고 있는 덕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덕 윤리는 이러한 RAIVE가 옳은 행위를 위한 외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덕 윤리는 옳게 행동한다는 것은 유덕한 사람이나 이들 성품의 특별한 측면에 대한 모범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덕 윤리학자는 RAIVE가 옳은 행위의 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덕 윤리 체계 내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행동할 때 가지고 있던 동기 또는 성품은 옳은 행위의 내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유덕한 행위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동기나 성품과 같은 동기나 성품을 가지고서,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옳게 된다.

따라서 나는 RAIVE의 옳은 행위 기준이 두 가지 유형, 즉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행위 실천의 동기의 유무나 그 내용에 따라서 행위자 외적 설명과 행위자 내적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AIVE는 외적인 정식과 내적인 정식으로 구분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RAIVE의 외적인 옳은 행위 정식의 특성:

다양한 상황에서 유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RAIVE의 내적인 옳은 행위 정식의 특성:

다양한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가지고서 행위 하는 동기나 성품을 갖는 것이다.

RAIVE의 외적인 옳은 행위 기준은 덕 윤리의 입장에서 승인될 수 없다. 왜냐하면 덕 윤리에서 우정을 가진 행위가 요청되는 것은 우정 그 자체 때문이지 우정에 단순히 부합되는 행위 때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토키의 예에서 문병을 간 친구는 단순히 의무라는 생각이 아닌 우정의 감정을 가진 행동이 요청된다. 따라서 덕 윤리의 옳은 행위 기준에는 유덕한 행위자의 성품에 대한 본질적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RAIVE는 내적인 옳은 행위 정식의 특성에 따라서 유덕한 행위자의 성품에 대한 본질적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RAIVE는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것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실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실행과 더불어서 유덕한 행위자의 성품과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옳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성품에 따라서 그리고 덕들에 알맞은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황에 알맞은 유덕한 성품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RAIVE의 옳은 행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선의 덕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자선적 성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덕한 행위자는 그들이 행동할 때 유덕한 성품과 동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품과 동기가 요구하는 적절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한다면 공리주의나 칸트 윤리학이 의미하는 ‘옳은 행위’는 ‘유덕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유덕한 행위의 한 조건에 불과하다. 즉 옳은 행위는 유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이다.²⁰⁾

20) 공리주의나 칸트의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조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5. 이상적인 모델에 의거한 옳은 행위 설명 방식

자신의 외부에 있는 이상적인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 옳은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은 줄리아 애너스가 잘 기술하고 있다.²¹⁾ 그녀는 옳은 행위를 위한 외적 모델이 갖는 특징을 사용 설명서와 모범자의 역할로 파악하고서, 사용 설명서 모델과 완전한 역할을 갖는 모범자 모델²²⁾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유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두 모델을 소개하고서 비판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극복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덕한 행위 조건의 (ii) 그리고 (iii)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델인 발전모델을 소개하고 옹호해 볼 것이다.

5.1 사용 설명서 모델

애너스가 주장하듯이, 사용 설명서 모델은 20세기 철학자들 사이에서 정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윤리적 사유 안에서 발견해 낸 지침을 세련되게 하여 행위 결정 절차와 같은 행위 지침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윤리적 논의에서 행위 지침으로 찾

것을 생각해 보라.

21) Julia Annas(2004), "Being Virtuous and Doing the Right Thing,"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78, No. 2., pp. 61-75 참조. 사용 설명서 모델과 모범자 모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 두 모델은 덕 윤리 논의 과정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두 모델에 대한 애너스의 설명과 정리가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애너스의 설명을 소개하였다.

22) 완전한 역할을 가진 모범자 모델을 간편하게 부르기 위하여 '모범자 모델'이라는 간략한 호칭을 사용할 것이다.

아닌 규칙을 세련되게 만든 후에 이 규칙의 일상적인 가변성을 제거하여 일반적인 원리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결정 절차와 같은 것이다.²³⁾

사용 설명서 모델은 윤리학적 문제에서 결정 절차와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기술의 영역에서 전자기기 사용 설명서가 기능하듯이 옳은 행위의 결정 절차 목록들이 윤리학의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사용 설명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결정 절차의 근거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공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리학 영역에서도 결정 절차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를 마련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도덕적 문제가 있을 때, 사용 설명서를 펼쳐 보고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하라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와 같은 특별하고 결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은 RAIVE의 외적인 옳은 행위 정칙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모델은 한편으로 매우 중요하고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모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윤리학의 행위 모델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가 단지 사용 설명서와 같은 기술적인 지침을 통하여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게 행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러한 지침을 숙지하면 족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영민한 젊은이는 이러한 지침서를 숙달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젊은이는 도덕적 충고와 지침을 주는 신뢰할만한 주체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우리는 이런 젊은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영민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덕적 조언을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3) Julia Annas, op. cit., p. 62 참조.

설령 총명하여 이해력이 좋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미숙하거나 어리석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더 많다.

사용 설명서 모델은 도덕적 성품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옳은 행위를 안내해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옳은 행위에 있어서 총명하고, 그리하여 탁월한 도덕적 조언을 해주는 것을 원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용 설명서 모델에 있어서 사람의 성품과 옳은 행위에 대한 조언 능력은 별개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옳은 행위에 있어서 총명하다면, 그의 성품이 매우 잔인하고 변태적 일지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그에게 도덕적 조언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의 잔인하고 변태적인 성품이 옳은 행위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도덕적 조언을 얻는데 있어서 그의 성품을 꺼려하고 괴로워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²⁴⁾

사용 설명서 모델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유색인종을 매우 혐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옳은 행위에 대해 매우 탁월하게 알고 있어서 이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비록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나는 그 사람이 행하라고 말하는 것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나 가치관과 옳은 행위에 대한 조언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사용 지침서 모델은 이런 결론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터무니없다. 어떤 주장이 옳은 행위를 성품과 분리시킨다면, 그것은 그 주장이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²⁵⁾

24) Julia Annas, op. cit., p. 64 참조.

25) 어떤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옳은 행위에 대한 탁월한 생각에 이를 수 없으며, 따라서 불쾌한 조언자란 있을 수 없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반론은 이미 덕 윤리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칸트식 윤리학이나 공리주의 이론에서는 얼마든지 불쾌한 조언자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

5.2 모범자 모델

모범자 모델은 완벽하게 유덕한 행위자에 의거해서 옳은 행위를 설명한다.²⁶⁾ 모범자 모델은 RAIVE에서처럼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옳은 행위인지를 안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덕한 행위란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이 선택할 법한 행위라는 주장을 통하여 분명해 질 수 있다.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완전한 덕을 가진 사람이거나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²⁸⁾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황이 요구하는 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다는 것이다. 용기의 덕에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두려움을 느낄 때와 확신에 가득 차 있을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너그러움의 경우에, 이것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너그러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베풀어야 하며 얼마나 자주 베풀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이 윤리에 있어서 모범자가 될 수 있다.

모범자 모델에서 프로네시스를 언급하는 것은 RAIVE의 내적인 옳은 행위 정식을 만족시킨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ii) 그리고 (iii)의 조건도, 비록 느슨하게일지라도, 설명해 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서 나는 덕 윤리에서 바람직한 행위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본 논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6) 모범자 모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덕한 행위자가 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

27) 모범자 모델도 역시 사용 설명서 모델과 마찬가지로 RAIVE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설명서 모델이 외적인 정식과 가깝다면, 모범자 모델은 내적인 정식과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8)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44b30-32 참조.

“옳은 것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 실행에 까지 옮겨야 프로네시를 가진 사람”²⁹⁾이기 때문이다. 프로네시스를 가져야 참된 앎을 알게 된다. 참된 앎과 실천하려는 성향은 프로네시스를 구성하는 독립된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프로네시스는 참된 앎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성향을 갖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나 많은 덕 윤리학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모범자 모델이 여러 반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반론은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제시된다. 첫째, 유덕한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명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모범자 모델은 “A는 유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A가 행하는 것을 해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장소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A를 유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덕은 이상적이어서 덕을 지닌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하여 나타난다. 유덕한 사람을 빌어서 옳은 행위를 설명하려는 입장은 유덕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는 주장에 의해 결함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유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통하여 나타난다. 덕 윤리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것은 자신의 성향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성향을 개선하는 것이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법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덕한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향상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³⁰⁾

5.3 발전 모델

모범자 모델에 대한 이런 반론은 얼핏 보아도 이 모델이 부적절한 것

29)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1152a8-9 참조.

30) Julia Annas, op. cit., pp. 67-68 참조.

처럼 보이게 한다. 모범자 모델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범이 될 만한 완벽한 유덕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유덕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나는 이것만으로도 모범자 모델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줄리아 애너스가 암시하고 있는 ‘발전 모델’은 이런 완벽한 유덕자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³¹⁾ 애너스는 유덕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근거하여 자신의 발전모델을 전개하고 있다. 즉 초보 건축가는 훌륭한 건축가의 활동을 배움으로써 점진적으로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윤리적 초보자가 유덕한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나는 애너스의 “발전 모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덕자에 대한 주장과 전적으로 합치한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보 건축가는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고서 그가 행하는 바를 반복해서 따라함으로써 배워나가고, 점차로 더 낮게 집을 짓게 된다. 발전 모델에서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모범자 모델에서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사람과는 사뭇 다르다. 모범자 모델이 모범자로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한다면, 발전 모델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초보자 자신보다 더 나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초보자는 배우면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전문가가 되며,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해를 자신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즉 초보자는 결국에 집짓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모방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보다 통일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진보하였다. 이러한 진보를 통하여 이제 그의 행위는 처음 자신이 모범으로 삼은 사람의 행위와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더 나은 건축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 모델은 우리 모두가 단지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31) Julia Annas, op. cit., p. 70 참조.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완벽한 유덕자는 아니지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본받아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전 모델은 완벽한 유덕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자신보다 더 유덕한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애너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발전 모델이 옹호될 수 있는 사례로 생각하는 듯하다. 내가 전문적인 피아노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하고서 브렌들(Alfred Brendel)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해보자. 그렇지만 그의 녹음된 연주를 집착해서 듣고, 그의 버릇을 따라하며, 그가 연주하는 곡만을 연주한다고 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배우는 영역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획득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처음엔 전문가에게 의존하지만, 배우의 목표는 전문가로부터 배운 것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갖는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³²⁾ 실천적 영역에서 전문가는 스승이 행하는 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복제품 같은 제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제자, 즉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획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스승이 비록 그 분야에 완벽한 모범자는 아니라할지라도 점진적인 배움을 통하여, 자신만의 이해를 실천하는, 즉 스승을 능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승과 제자의 특성이 예술의 분야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피카소는 ‘폴발 위의 점심’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 그림의 구도는 피카소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피카소의 이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폴발 위의 점심’의 구도를 모방하였다. 그리고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은 라파엘로를 모작한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의 ‘파리스

32) Julia Annas, op. cit., p. 69 참조.

의 심판'의 구도를 베껴온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잰슨은 예술 학도는 다른 예술 작품을 모방하는 기술의 단계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어떤 훌륭한 예술가도 처음엔 모방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모방을 발전시켜 결국엔 자신만의 확고한 자취를 남기게 된다.³³⁾ 전통을 모방하여 이어받아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이어 받은 전통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엔 독자적인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잰슨의 이런 생각은 발전 모델과 전적으로 합치하는 설명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얻은 덕에 대한 관습적인 파악을 가지고 성장해 간다. 성장의 과정에서 스스로 초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다. 덕에 있어서 초보자는 해야 할 옳은 것이라고 그가 배운 것을 행하면서 시작한다. 즉, 사회 안에서 관습에 의해 유덕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모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초보자는 이전 보다 충분히 유덕한 사람이 되어 간다. 그는 서서히 보다 더 유덕한 사람으로 발전하여 가며,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유덕한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는 덕을 향해 진행해 가면서 그 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용감함의 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서, 그 이해의 의미에 따라서 용감한 행위를 실천한다. 나중에는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이 올바른 경향성에 따라서 행하듯이 실천하여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이 된다. 발전모델에서 완벽하게 유덕한 사람은 도덕과 관련된 상황에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계발한 사람이며, 자신이 설정한 모범자보다 발전하여 그 모델을 넘어서는 실천적 지혜를 획득한 사람이다.

나는 유덕한 행위자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 즉 발전 모델은, 앞의 두

33) H.W.Janson and A.F. Janson(2003), *History of art for young people*, Prentice Hall, pp. 17-33
참조.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 가지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전 모델은 (1) 완전한 유덕자가에 대한 설명의 부담에서 벗어나 있다. 그동안 제시되어 왔던 모범자 모델은 유덕한 행위자가 되기 위해 본받아야 할 모범자, 즉 완벽한 유덕자를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완벽한 유덕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변변한 설명은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완벽한 유덕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설명 그가 완벽한 유덕자라할지라도 완벽하게 유덕하지 않은 사람이 그가 유덕자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발전 모델은 이러한 완벽한 유덕자에 관한 설명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설명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발전 모델은 (2) 우리가 배움과 실천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실질적 과정과 매우 잘 부합한다. 실제로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가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유덕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부모, 선생님, 상사 등을 모델로 삼고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인 이러한 이행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설정했던 모델을 뛰어넘어 보다 더 유덕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³⁴⁾

34) 이러한 관점을 담은 실질적인 사례 연구들이 많이 발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 연구들을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에 관해서는, Pelaez, M. and Gewirtz, J.L.(1995), "The learning of moral behavior; A behavior-analytic approach,"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W. Kurtinnes and J. Gewirtz (eds), Boston/London: Allyn and Bacon과 McClellan, J.(1976), *Philosophy of Educ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그리고 Stern, D.(1977), *The First Relationship: Infant and mother*, London: Fontana/Open Books 참조.

6. 결론

덕 윤리가 공리주의와 칸트식 윤리학과 같은 의무 윤리학(Duty Ethics)의 난점을 지적하면서 윤리 이론의 하나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덕 윤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비판을 해명하거나 대답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덕 윤리의 가장 큰 결함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어떻게 유덕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주목하고서 여기에 답하려는 여러 관점을 고찰하고서, 이러한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특히, 덕 윤리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던 ‘덕 윤리의 옳은 행위 정식’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논의를 통하여 나는 그동안 당연시 되던 ‘옳은 행위 정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옳은 행위 정식과 앞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앞에 관한 몇 가지 모델, 즉 사용설명서 모델, 모범자 모델, 그리고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서 발전 모델이 덕 윤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론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발전 모델이 덕 윤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론이라고 제안하면서, 발전 모델이 (1) 완전한 유덕자에게 대한 설명의 부담에서 벗어나 있으며, (2) 우리가 배움과 실천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실질적 과정과 매우 잘 부합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나의 논의가 충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보다 세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요한 볼프강 폰 괴테(2012), ‘천상의 서곡’ 『파우스트1』, 민음사.
- Alasdair MacIntyre(1984),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Elizabeth Anscombe(1958),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 Barbara Herman(1993), *The Practice of Moral Judg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Janson H.W. and Janson A.F.(2003), *History of art for young people*, Prentice Hall.
- Julia Annas(2004), “Being Virtuous and Doing the Right Thing”,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78, No. 2.
- McClellan J.(1976), *Philosophy of Educ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Michael Slote(1992), *From Morality To Virtue*,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ael Stocker(1987), “The Schizophrenia of Modern Ethical Theories”, *The Virtues: Contemporary Essays on Moral Character*, Robert B. Kruschwitz & Robert C. Roberts(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Kurt Baier(1998), ‘Radical Virtue Ethic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13.
- Pelaez, M. and Gewirtz, J.L.(1995), ‘The learning of moral behavior; A behavior-analytic approach’,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W. Kurtiness and J. Gewirtz (eds), Boston/London: Allyn and Bacon.
- Peter Railton(1988), “Alienation, Consequentialism and demands of Morality”,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Samuel Scheffler(ed),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pa Foot(1991), “Euthanasia”, *Virtue and Vic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M. Hare(1981), *Moral Thinking: Its Levels, Method, and Point*, Oxford Univerity Press, UK.
- Robert B. Louden(1984), “On Some Vices of Virtue Ethic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1.
- Rosalind Hursthouse(1991), “Virtue Theory and Abor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0.
- Stern D.(1977), *The First Relationship: Infant and mother*, London: Fontana/Open

Books.

William Frankena(1970), "Prichard and the ethics of virtue", *The Monist* 54.

원고 접수일: 2013년 4월 29일

심사 완료일: 2013년 5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8일

ABSTRACT

Models about the Virtuous Person and Virtue Ethics

Chang, Dong-Ik

Virtue ethics has solved the disadvantages which come from Utilitarianism and Kantian ethics and so is esteemed as a rival ethical theory to normative ethics. It is much criticized by Utilitarian and Kantian ethics. Those who adhere to virtue ethics should be able to answer to the criticisms presented by utilitarian and Kantian ethics. In this paper, I present an explanation on the relation of the virtuous agent to right action, because this explanation allows room to understand how one may be a virtuous person and what are the things that a virtuous person does, this being one of the criticisms thrown towards virtue ethics. I first broadly examine the priority of aretaic evaluation in character trait over normative evaluation in action, because the relation between the virtuous agent and right action can be explained by different views in the priority of aretaic evaluation. I also consider the technical manual model, role model, and developmental model and suggest that the developmental model is the most appropriate as a proper model of being a virtuous agent in virtue ethics. While having argument about a formula about right action in virtue ethics' and a condition "agent knows" on an act's being done in Nicomachean Ethics.